

# ‘함평화폐’로 경제도 활짝

### 농어가수당 전액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 상가 활성화·자금역외 유출 방지 등 효과



함평군이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올 3·4분기 ‘농어가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전국 최조라는 타이틀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군은 농업보전과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하반기 농어가수당 40억 7,430만 원을 지역 1만 3,581 농가(3·4분기 중복 포함)에 지급했다.

분기별로는 3분기 6,785농가 20억 3,550만 원, 4분기 6,796농가 20

억 3,880만 원이 전액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됐다.

군은 수당 지급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지역상품권 환전거래실적을 통해 농어가수당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자체 조사 결과 첫 농어가수당을 지급했던 지난 9월 이후 상품권 환전거래실적이 136개 업체 14억 8,000만 원을 기록, 수당 지급전인 5월(35개 업체, 9,160만 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거래업체수로는 38배, 거래금액으로는 약 16배 가량 수치 상승했다.

특히 3분기 수당 지급 직후인 9~10월에는 상품권 환전액이 19억 600만 원에 달해 3분기 수당의 약 94%가 바로 지역 상가를 통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지역상품권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농·축협 소비비율과 수

당 지급 후 상품권 환전 업체수(162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를 통한 농어가수당 지급이 지역 상가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소득증가에 상당 부분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가수당이 지역화폐를 통해 전액 지급되면서 자금역외 유출 방지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역 전체에 미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지역상품권 가맹점 수를 대폭 늘려 앞으로 지급될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지난 9월말 통과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 연 60만 원(반기별 3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농가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함평=김광준 기자

## 목포시, 11월 수도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



목포시가 지난 11월 중에 실시한 몽탄정수장과 옥암배수지, 일반수도꼭지 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미생물 4종, 건강상유해영양 무기물질 12종, 건강상유해영양 유기물질 17종,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 11종, 심미적 영향물질 16종 등 총 60개 항목에 대한 수

질검사 결과 납, 비소, 페놀 등 42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질산성질소(0.5mg/L) 등 18개 항목은 기준치 보다 낮게 검출됐다.

시내 39개 지역에서 표본 추출한 일반수도꼭지 수도물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일반세균, 총대장균 군, 분원성대장균 군/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 수도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아 깨끗하고 안전함이 확인됐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 아울러, 등질기에는 계량기 등과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문제 발생시 등과민원처리 상황실(☎272-3000, 270-8564)을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한국관광의 별’ 되다”

### 본상 수상... “치유와 휴식의 열린공간으로 가꿀 것”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2019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장흥군은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장흥군은 2015년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흥읍 억불산(518m) 기슭에 위치한 우드랜드에는 약 100ha에 걸쳐 40~50년생 아름다운 편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2018년 열린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한 편백숲 우드랜드는 억불산

정상까지 완만한 경사로인 ‘말레길’이 조성돼 있다.

말레길 코스를 이용하면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산림욕을 즐기며 억불산정상에 오를 수 있다.

장흥군은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의 별 홍보활동(팬투어, 사업설명회 등), 여행주간 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지원을 발굴해 왔다.

장흥=위지훈 기자



## 영암 월출산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실시



영암 월출산농협에서는 지역 사랑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동안 시종면 구산리 마을회관에서 고향생각

주부모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하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황추실 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김치를 직접 배달하여 경로당,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출산농협 고향생각주부모인은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매년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역사회봉사활동, 건전한소비활동, 농산물직거래사업, 여성단체간 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박성표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출산농협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와 같은 지역사랑실천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출산장려사업 확대

강진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강진’을 만들기 위해 건강강한 임신·출산을 적극 돕고 있다.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누구나 임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임산부에게는 임신부건강관

리,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최대 6만원), 출산준비금 지원(1인당 2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임부출산 교실 및 출산부 건강증진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강진군 신생아 양

육비 지원(최초 120만원), 출산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용료 70%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및 감면료 지원(일반 30%, 기타 70%), 분만취약산부인과 운영 등 다양한 모성건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